

추석 명절 추모 가정예배 순서

주후 2024. 9. 17(화) 아침

사회 | 담당자

묵	도	고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봉	독	시편 23편	가	족	중							
추	모	의	말	씀	하	룻	길	같	은	인	생	사	회	자
찬	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다	함	께								
추	모	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중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께								

성경말씀 시편 23편 1~6절

- 0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0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0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0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0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0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추모의 말씀(Message) 하룻길 같은 인생

인생은 길게 살아도 짧게 살아도 하룻길 삶에 불과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 순간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 하룻길 인생의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아침시간의 행복

예수를 선한 목자로 만나 그의 돌봄을 받는 아침의 행복이 1-2절에 그려집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를 경험합니다.

2. 점심시간 전후의 은혜

우리의 영혼이 그의 은혜로 소생하고 그의 인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로우신 목자를 만나 그의 이름을 위해 그가 예비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3절).

3. 오후 시간의 모험

인생은 위험한 모험이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 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4절).

4. 저녁시간의 위로

목자는 하룻길 여행에 지친 양들을 위해 탁자 같은 은총의 바위(메사)에 그를 눕히고 기름을 부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5절).

5. 밤 시간의 긴 안식

밤 어둡기 전에 목자는 양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들어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돌아 보며 양들은 긴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6절).

하룻길 여행을 마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며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고,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하룻길 남은 여행을 잘 준비하십시오.